

HRD 2월의 이슈

-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 취업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2025년 과점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1,683개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지원
최대 1,840만원



고용24 개인 누적
회원 달성
1,000만



1월 고용시장,
역대 최고 경제활동참가율 달성
63.9%

Vol.107
February 2025

02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5년 1월 10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일자리를 통해 민생을 지키고 사회적 대화로 노동시장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보도자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2025년 주요 업무계획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위축, 노사관계 불안 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사·디지털 등으로 산업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고용불안이 우려되고 있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 부족 등으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2차 베이비부머(’64~’74년생) 164만 명이 주된 일자리에서 이직할 것으로 추산되는 등 이·전직 준비가 부족한 중장년의 노후 소득 불안도 심화될 전망이다.

일하는 부모의 경우 꾸준한 출산·육아지원 확대로 지난해 출생아수 증가 등 저출산 추세에 변화 조짐이 있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는 육아휴직 활용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제도로 보호받기 어려운 약 500만 명의 노동약자에 대한 지원·보호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일자리 민생안정에 주력하는 동시에 노사법치 기반 위에 지속적인 노동개혁 추진’을 핵심 골자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목표 일자리 민생안정, 따뜻하고 안전한 노동현장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 ☑ 상반기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한 신속한 취업지원
- ☑ 근로자 생계안정 집중 관리
- ☑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 선제적 대비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 지속 추진

- ☑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 강화
- ☑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
- ☑ 사회적 대화 여건 조성을 통한 노동개혁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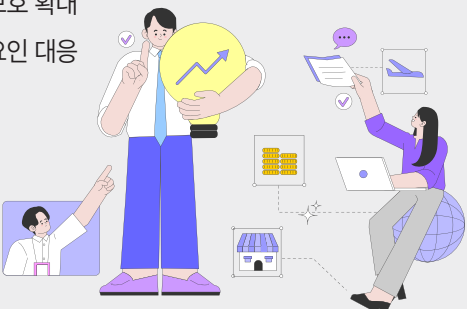
- ☑ 관계부처·기관 협업으로 통합적인 일자리 매칭
- ☑ 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
- ☑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성 향상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 ☑ 청년, 빠른 취업을 위한 촘촘한 지원
- ☑ 일하는 부모, 출산·육아지원 대폭 확대
- ☑ 중장년, 원할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 장애인, 역량개발 및 일자리 기회 확대

현장중심의 노사자율안전보건체계 확립

- ☑ 중소기업 안전역량 향상 지원
- ☑ 산업안전 취약분야 맞춤형 관리
- ☑ 근로자 건강보호 확대
- ☑ 새로운 위험요인 대응



1 일자리 민생안정 역량 집중

[1] 고용 불확실성에 대응해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일자리 예산 조기 집행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하여 일자리 충격을 최소화한다.

상반기에 예산 70%를 조기 집행하고 복지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분기 내 110만개의 직접일자리 제공(통합공고 실시, 1월). ‘2025년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를 통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한다.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중기부 희망리턴 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 일용직 근로자 취업지원센터도 확대(2개→7개)한다.

[2] 근로자 생계 안정에도 집중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 아래 상습체불은 감독 강화, 강제수사 등 엄정 대응하고 피해근로자는 신속히 구제한다.

설 명절에 대비하여 1월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운영하고, 간이대지급금 처리기간은 절반으로 단축(14일→7일)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혼례·양육비용 대출시 최대 3% 이자를 지원하고, 산재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 융자도 확대(2→3천만원)한다.

[3]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변동에는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산업재편이 진행 중인 석유화학업은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시(산업부) 협력업체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인정기준을 완화한다.

폐지 예정인 태안·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자체(충청남도, 경상남도)와 함께 근로자 이·전직 및 전환배치 훈련을 지원한다(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 대상별 맞춤서비스 업그레이드

〈공급〉대상별 맞춤형 서비스

청년

- ☑ 쉬었음-올케어(교육부 협조)
- ☑ 일경험 ↑ (4.8만명→5.8만명)
- ☑ 빈일자리 취업 지원

일하는 부모

- ☑ 육아휴직 활용확대
- ☑ 중소기업 + 아빠활용 ↑

중장년

- ☑ 연령별 맞춤 지원
- ☑ 40+ 경력설계 50+ 맞춤훈련 60+ 계속고용

장애인

- ☑ 적합직무 ↑
- ☑ 표준사업장 확대

취업분위기 UP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고용센터, 고용24

△ 직업상담 및 직업 훈련 활성화

△ 유관기관 협업 ↑

예산 상반기 조기 집행(70%)

〈수요〉우수기업 확보

고용부

- ☑ 일자리 으뜸기업
- ☑ 청년 강소기업

산업부

- ☑ 업종별 협단체

중기부

- ☑ 우수 중소기업

과기부, 복지부 등

- ☑ 반도체, 바이오 등

기업 지원 강화

- ☑ (경기둔화) 고용유지지원금
- ☑ (중장년) 계속고용 장려금
- ☑ (출산육아) 대체인력 지원금

[1] 청년, 빠르게 취업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합니다.

‘쉬었음’ 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기존 8개)한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5만 명)하고 심리·일상회복, 찾아가는 특화 프로그램 등으로 취업을 촉진할 예정이다.

5.8만 명의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통해 맞춤형 직무체험을 제공한다. 관계부처(과기·교육·복지부 등)와 함께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KDT(AI, 반도체, 바이오헬스, 예코업 등)도 지원(4.5만 명)한다.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최대 480만 원(2년간), 기술연수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원하여 근속을 유도한다.

[2] 출산·육아지원, 중소기업 활용을 적극 지원합니다.

육아휴직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부, 5개 지자체, 신한금융이 협력하여 대체인력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 최대 1,840만 원(사업주 1,640만 원, 근로자 200만 원)을 지원한다.
* (지자체) 서울, 광주, 울산, 전북, 경북
전기요금 납부서, 우체국 택배 상자 등 생활 밀착형 홍보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출산·육아정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3] 중장년에게는 원하는 만큼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합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보다 효과적인 재취업을 돕는다.

경력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향후 3년간 15만명 (3.5(’25)→5(’26)→7만 명(’27))에게 제공한다. 폴리텍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 경력전환 기회와, 「기업·산업주도 훈련」으로 경력이음을 지원한다.

계속고용은 전문가·현장 의견 수렴,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일부만 계속고용하는 경우도 지원)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4] 장애인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합니다.

40~50대에게는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함께 훈련, 직무경험, 보조금을 지주회사와 의료법인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다(장애인 고용법 특례 신설). 표준사업장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표준사업장 지원금을 기업당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한다.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해 적합 직무를 개발(36→42개)하고, 맞춤형 컨설팅(500개소)을 제공해 신규 직무와 채용을 연계한다.

[2]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줍니다.

대법원 판결(’24.12.19.) 이후 현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월 중 신속히 개정한다. 임금체계 개선 컨설팅 및 직무·성과 임금체계 개선 우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계한다. 업무량 폭증, 연구개발 등의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등을 활용하여 활용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근무 장려금(96(’24)→118(’25)억 원) 등 유연한 근로시간 활용도 지원한다. ‘제때’ ‘필요한’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발급·입국 기간을 단축하고, 특화훈련(뿌리산업, 조선업)으로 숙련도를 높인다. 또한 우수 외국인 근로자는 최장 10년 연속 근무할 수 있도록 법 개정(’24.6.7. 발의)도 추진한다.

[3]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

[1] 노동약자를 위한 정책지원은 강화해 나갑니다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안정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노동질서 감독 이후 컨설팅과 연계하여 자율 개선도 촉진한다. 아울러 경제·민생과 밀접한 사업장은 전담 감독관이 법 준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2월 31일 발의된「노동약자지원법」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신설된 플랫폼, 프리랜서 지원 사업(’25년 160억 원)을 통해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도 이어나간다.

[3]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계속고용(인구 구조 위기대응), 일·생활 균형(근로시간, 유연근로) 과제 중심으로 노사정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와 협력해 「반도체 특별법」 국회논의를 지원하고, 현장 노사의견 수렴 등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무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수 있도록 표준 임금모델 확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4] 현장 중심의 노사자율 안전보건체계 확립

[1]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합니다.

사망사고가 빈번한 업종의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화 컨설팅을 제공(3.4만개소)한다. 필요한 안전장비는 지정품목 외에도 사업장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자율품목 신청제’도 마련한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안착시키기 위해 중대재해가 많은 건물관리업, 폐기물처리업 등에 대해 위험요인별 감소방안(표준모델)을 개발·제공한다.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안전기술을 공유하고 공정을 개선할 경우 정부는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한다.
* [안전보건상생협력] 재해 이력 있는 중소기업 참여 확대, 정부 사후점검 신설(’25년 130억) [안전동행지원사업] 50인 이상 사외하청업체 지원 대상 포함(’25년 3,320억)
[2] 산업안전 취약분야는 집중적으로 지원합니다.
배달종사자에 대한 위험성 평가 방법을 개발(상반기)하고 씬터·그늘막 설치 및 노후 이륜차 무상 정비 등 자율 산재예방 활동도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안전서포트를 신설(’25년, 23억 원)하여 비언어적·직관적 안전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3] 근로자 건강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개정 산안법(’24.10월)에 따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주 조치 의무규정이 시행된다.(’25.6월). 온열질환 예방 설비·시설 등 재정지원(’25년, 200억 원)과 취약사업장 대상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질환 고위험군은 심층 건강진단, 초고위험군에게는 정밀검사 등을 지원한다. 새로운 발암성 물질에 대한 근로자 건강 추적관리도 확대한다.(건강관리카드 발급대상 물질 15종→19종)

[4] 새로운 위험요인은 미리 대응하겠습니다.

산업현장에 증가하고 있는 이동형 로봇은 '사람 감지장치' 설치 등 안전조치 규정을 상반기 중 정비한다. 과기부, 중기부와 협업하여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 스마트 안전기술을 개발(~12월)하고 우수 스마트 안전장비(지게차 AI 영상인식 등) 활용을 지원(’25년 350억 원)한다.

[5] 인프라 혁신을 통한 국민 체감도 제고

[1] 관계부처·기관과 협업하여 일자리 매칭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훈련기관, 복지·금융 서비스 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계층에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정책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기업을 확보하여 청년 등에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한다.

[2]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국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노동관계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AI기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분야를 지속 확대한다. ‘고용24(가입자 1천만 명)’는 AI를 활용해 구인구직 매칭을 개선하는 등 더욱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드론을 활용한 감독, 지역별 재해 데이터 분석 및 위험경보 발령으로 과학적인 재해예방도 지원한다.

[3] 전문성 강화로 서비스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베테랑→마스터)’를 도입하여 서비스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하여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 확대, 원격훈련 과정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을 개정·고시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보다 많은 훈련 기회가 보장된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한다. 가정 밖 청소년들은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훈련생에 비해 낮은 훈련비(자부담률 15~55% → 0~20%)를 부담하고 훈련에 참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좌 한도 300만원 소진 시 200만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체제,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5호)

구직자들의 훈련 기회도 확대된다. 그동안 구직자가 수강 가능한 원격훈련 과정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훈련과정 제공이 부족했던 분야를 중심으로 구직자도 일부 ‘재직자 원격훈련’ 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 규정을 완화했다. 이를 통해 구직자들이 수강할 수 있는 훈련은 22개 훈련기관 597개 과정이 추가될 예정이다(‘25.1.1. 기준, 추후 변동 가능).

* (사)한국이러닝협회 등 3개 단체에서 527개 과정 운영(‘25.1.1. 운영 가능 과정 기준)

금정수 직업능력정책국장 직무대리는 “이번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성공적인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훈련생에게 더욱 다양한 훈련을 제공하여 훈련 선택권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① 기간제·일용근로자 등 취약계층 계좌한도 추가지원액 상향(안 제14조제2항)
 ○ 고용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 파견·단시간, 일용근로자 등 취업 취약 계층의 직업 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계좌 추가지원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400 → 500만원)

② 가정밖청소년 계좌 지원한도 및 훈련비 우대(안 제46조제1항 등)
 ○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밖청소년의 직업훈련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우대 지원대상으로 추가
 - 계좌 한도 추가 지원(300 → 500만원) 및 훈련비 자부담 완화(자부담률 15~55% → 0~20%)

③ 중복수강이 제한되는 동일과정 개념 신설(안 제8조제6항)
 ○ 훈련기관·훈련직종·훈련내용 등 실질적인 기준으로 동일과정 여부를 파악하도록 명확히 하여 훈련생 책임성 강화

④ 훈련생의 인터넷 원격훈련과정 선택권 확대(안 [별표2])
 ○ 현재 구직자들이 수강 가능한 인터넷 원격훈련은 ‘실업자 원격훈련’으로 범위가 한정되어 훈련과정 선택에 제약
 - 훈련직종, 훈련기관 역량, 콘텐츠 등급 등을 고려하여 일부 훈련과정에 대하여는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수강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완화

⑤ 기타 조문 정비 등

- (외국인 지원 기준 정비) 「평생직업능력법」에 따라 외국인은 전부 지원 제외하되 일부를 허용하는 구조로 개정하여 외국인에 대한 지원 여부 명확화
- (어려운 용어 정비) 법제처의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규정에 있는 자부담, 자부담액, 자비부담액을 본인 부담, 본인 부담액으로 정비
- (사업 폐지에 따른 규정 정비) 중장년 경력설계 카운슬링, 플랫폼 종사자 특화훈련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 삭제
- (제적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 명시) 현재는 훈련생 제적 시 이의신청 기한(3일 이내)이 내부지침에 규정되어 있는바,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운영규정에 명시
- (사업 기간 판단기준 명시)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인 법인 대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사업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준을 명확히 규정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과 청년 모두를 지원합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자리에 도전하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3일(목)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 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유형1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유형2 ^{신설}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1년간 최대 720만원(60만원×12개월)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18·24개월 근속 시 각 240만원(최대 480만원)

*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일경험지원사업 참여자, 자립지원필요 청년 등
** (빈일자리 업종)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 업종

홍경의 청년고용정책관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등 구조적 요인과 수사·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청년들의 구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더 많은 청년의 취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주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는 경우에도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유형2를 신설한 만큼 빈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도전하는 청년, 약진하는 기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목적

청년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

유형1 취업애로청년의 취업 촉진

유형2 제조업 등 빈일자리업종의 인력난 완화, 청년의 장기근속지원

지원
대상

유형1	유형2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등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
내용

유형1	유형2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① 기업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년간 최대 720만원 지원 ② 청년 18개월 이상 재직 시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 (8-24개월차 각 240만원)

신청
방법

고용24(www.work24.go.kr)에서 기업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신청

고용노동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 (Best HRD Academy)과 직업훈련 혁신 박차!



2024년 12월 27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베스트직업훈련기관(Best HRD Academy)과 직업훈련 혁신 박차!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직업훈련기관 16개소와 '25년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원장 이장희)은 12월 27일(금) 서울 aT센터에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BHA, Best HRD Academy) 16개소와 「직업훈련 혁신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부터 직업훈련기관 중 엄정한 심사를 통해 혁신적 훈련성과가 인정되는 기관을 베스트직업훈련기관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공모를 거쳐 직종 특성, 기술의 변화, 새로운 훈련기법 등을 잘 활용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2개소를 추가 선정했다.

2024년 선정된 대전에 있는 현대직업전문학교는 전기자동차 정비 가상(VR)시뮬레이터 활용 등 자동차 산업의 기술변화 수요를 반영한 훈련을 통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기 광주에 있는 그린직업전문학교는 구인기업체의 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친환경 전기지게차 도입, 훈련과정 개발을 통해 훈련 성과를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우수한 훈련과정을 많이 공급할 수 있도록

성과협약훈련 실시, 심사 가점 부여, 홍보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산업계 수요를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전체 직업훈련 시장을 선진화하고 고품질의 훈련과정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이 앞장서서 훈련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새로운 훈련기법을 도입 및 확산하여 국민에게 품질 높은 훈련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의 훈련운영 우수사례를 일반기관에 확산하고, 산업체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장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공모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 훈련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베스트직업훈련기관의 컨설팅 참여 결과 일반훈련기관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지속적으로 훈련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과 2025년 국내·외 경제·일자리 전망 논의



2025년 1월 8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장관, 국책연구기관장과 2025년 국내·외 경제·일자리 전망 논의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월 8일(수) 10:30 한국개발연구원 등 5개 국책연구기관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장, ▲한국노동연구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산업연구원장,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2025년 국내·외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연구기관들과 국내·외 경제·일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후 전망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늘 간담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은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다양한 변화 속에서 2025년은 관세인상 등 부정적 영향이 주로 언급되나 국제유가 안정

가능성 등 긍정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미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과정에서 수출감소와 함께 불확실성이 증가해 한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교·안보차원에서 적절한 노력이 수반되면 조선·원자력·방위 산업은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문수 장관은 “국내·외 환경 변화가 경제 및 청년과 노동약자의 일자리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현 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기존의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새로운 고용노동정책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로봇부터 방사선까지! 미래를 여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2025년 1월 23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로봇부터 방사선까지! 미래를 여는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과정 총 504개 기관 1,683개 과정 지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201개 종목('24년 대비 15개 종목 추가)에 대한 운영 기관(총 504개)과 교육·훈련과정(1,683개)을 선정하여 1월 23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 '25년도 과정평가형 자격 교육·훈련과정 선정 결과 >

구 분	4년제대	전문대	폴리텍	직업계고	군	직훈기관	공공기관	계
기관(개) * 중복제외	12	44	20	144	7	271	6	504개 기관
과정(개)	45	124	84	526	32	865	7	1,683개 과정

*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현장의 목소리

“회사로부터 취득자들이 현장의 전문용어를 알고 있어 빠른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수월하게 업무에 적응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정평가형 자격 덕분에 회사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실내건축산업기사 취득자, 김OO)



“저처럼 경력이 없는 사람도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과정평가형 자격의 매력입니다. 현재 업무 파트너인 OO제철에서 ‘신입의 썸씨가 아니다’, ‘경력직 같다’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뿌듯합니다.”
(용접산업기사 취득자, 이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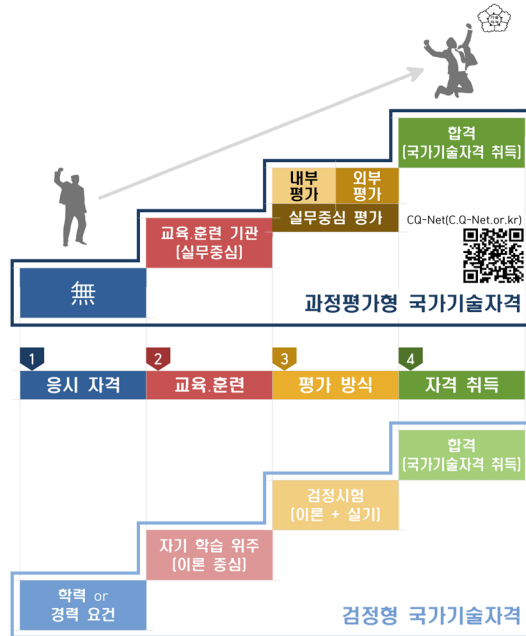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매년 인기 종목을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종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2025년에는 전년 종목에 더해 로봇기구개발기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 산업기사(태양광), 방사선비파괴검사산업기사·기능사 등 15개 종목을 새롭게 개설하여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했다.
(’21년) 167개 → (’22년) 178개 → (’23년) 179개 → (’24년) 186개 → (’25년) 201개

검정형 국가기술자격은 학력 및 경력 등 요건이 부합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데 반해,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에 참여해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2025년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과정 공고」: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 과정평가형 자격 누리집(c.q-net.or.kr) 공지 사항에서 확인 가능

이정환 고용정책실장은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은 취업경쟁력과 기업 만족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매력적인 기회”라며,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인기 자격 종목 중심으로 과정평가형 신규 종목을 지속 확대하고, 교육·훈련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어 산업현장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는 데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과정평가형으로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하세요!

- 학력 NO, 경력 NO, 자신감 하나면 OK -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2025년 1월 16일,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여성경제활동 지원 정책 및 여성 고용 동향 등 종합 수록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1월 16일(목), 우리나라의 여성 경제활동변화를 담은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를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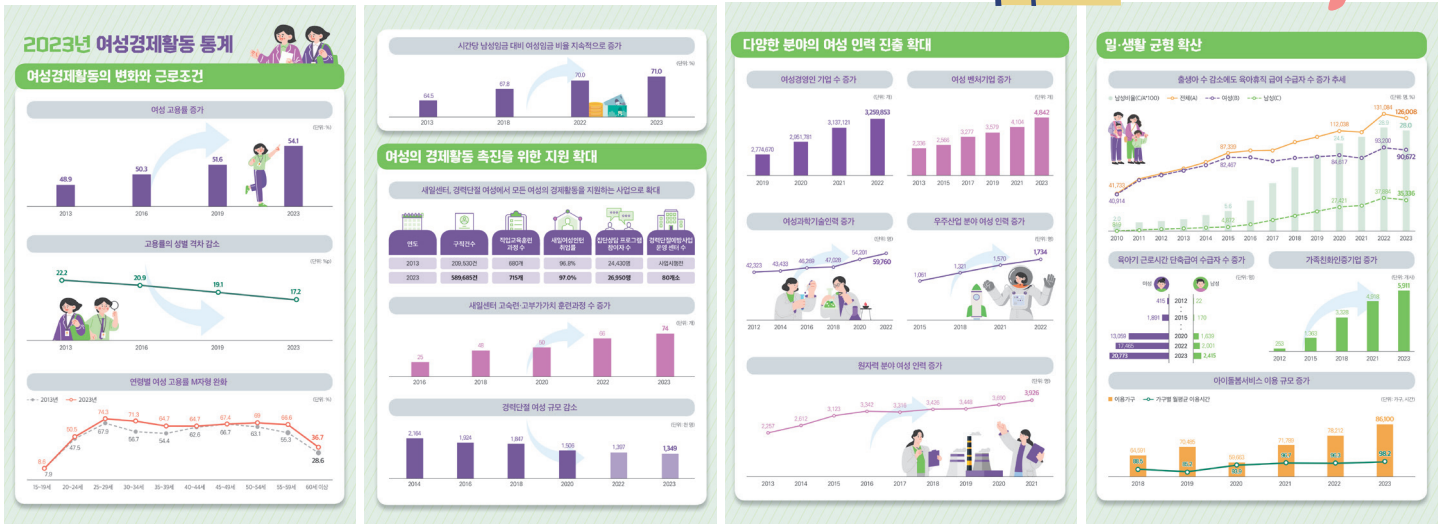
이번 백서는 「2023년 여성경제활동백서」 이후 두 번째로 발간하는 것으로, 기존 수록된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고용 동향을 최신화했다.

또한 새롭게 ①향후 여성 인력 활용 촉진이 필요한 주요 국가전략기술분야의 고용 동향과 여성벤처기업 현황을 수록하고 ②여성의 일자리 질적 분석에 필요한 근로 여건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여성경제활동, △일·생활 균형, △돌봄, △고용환경 관련 주요 정책·사업과 제·개정 법령을 수록하여 국민이 필요한 정책을 한눈에 찾을 수 있도록 했고,
<제2~5장>에서는 △고용(전반, 경력단절, 국가전략기술분야 등), △직업훈련 참여, △과학기술인력, △기업활동, △근로여건 등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함께, △일·생활 균형의 지표가 되는 항목(유연근무제,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지급 현황 등)을 분석했다.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는 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와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 누리집에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 농어업협력재단,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가 함께 대체인력 지원

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 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이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원으로 8배 확대*됐다.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체인력지원금: ('24) 144억원 → ('25) 1,194억원

아울러, 신한금융그룹은 100억원을 출연하여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와 별도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여 소득을

보완한다. 이는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한 것이다.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서울은 각 60만원씩 총 120만원을 지원한다.

넷째,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의 정책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김문수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약 3,200만원)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하여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노동부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청년 한 명 한 명의 길을 만드는 2025년 청년 고용정책



2025년 1월 22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청년 한 명 한 명의 길을 만드는 2025년 청년 고용정책**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
-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1월 22일(수) 10:30, 2025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재하고, 관계부처, 청년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는 최초로 '2030 자문단'이 참여해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자문단원들은 청년들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바라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

정부는 올해 ①**졸업예정자**, ②**쉬었음 청년**, ③**직업계고생**을 대상으로 정책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졸업예정자를 위해 '졸업 후 4개월 내 조기개입'하여, 취업준비가 장기화되고 쉬었음으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자 한다.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1 상담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8만명, 첨단산업분야 직업훈련 4.5만명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다음으로, 40여만명의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발굴과 지원에 나선다. 불안감이 큰 청년들에게는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4만건)과 직업진로지도(CAP@)도 확대(전년 대비 +11.2억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도 구축한다. 직업계고 청년은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다. 따라서, 졸업예정자 6만명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진로·직업상담(1.5만명), 신산업 분야 특화 훈련(3,600명), 직업계고 직무 특화 일경험(신설, 500명)을

실시한다. 또한, 졸업 직후 취업하는 2만명에게는 초기 2년간 최대 980만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일하며 직장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제2기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한편, 고용노동부는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새롭게 구성된 제2기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자문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된 점이 주목받았다. 예를 들어, 특성화고 용접 기능대회에서 수상하고 조선업 경력 10년 차인 직장인, 소년원 직업훈련 담당 경력자, 7곳 이상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가진 10대 대학생 등이 참여했다. 자문단은 월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활동 결과를 유튜브 등으로 공유할 예정이며, 청년들의 다양한 삶과 밀접하게 맞닿은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채용시장이 위축되는 가운데 코로나 학번이 졸업하면서, 청년들이 취업 과정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겠다.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천만 달성



2025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천만 달성**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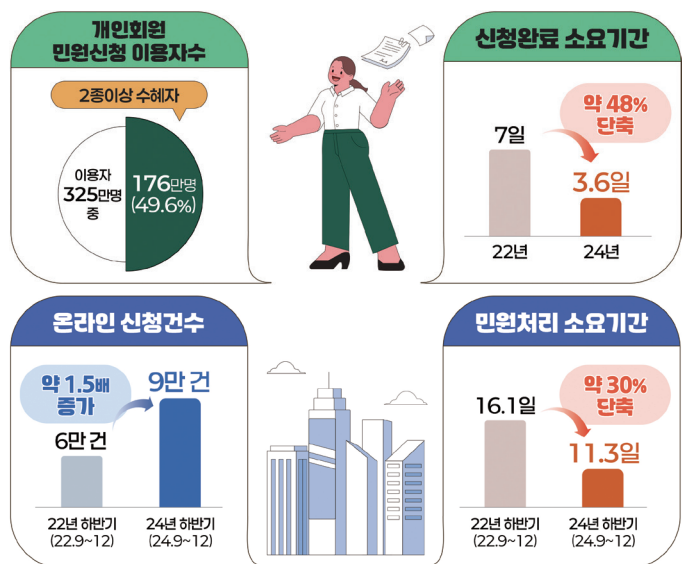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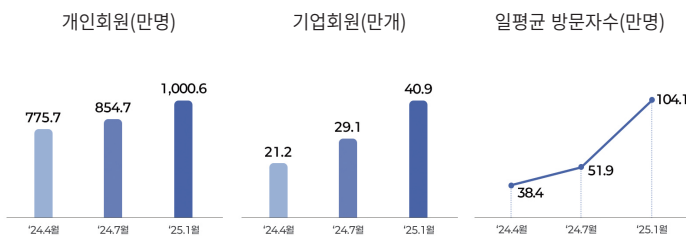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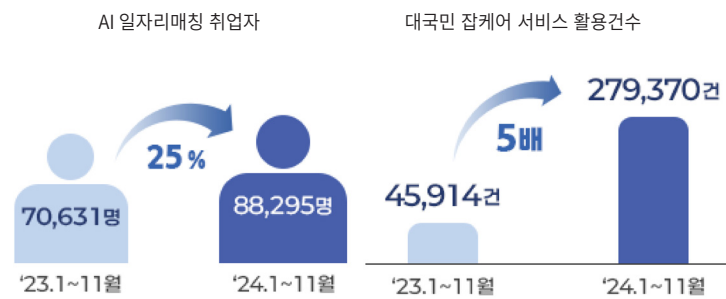


- 2024년 9월 정식서비스 개시 이후 4개월 만에 회원 수 1,000만 돌파

024년 9월 23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한 ‘고용24’가 4개월 만에 개인 누적 회원 천만 명(25.1.15. 기준 10,000,062명)을 돌파했다. 고용24 기업회원도 매월 약 10만 개씩 가입하여 누적 회원은 40.9만 개에 이르고 있다. 개인회원 천만 명은 우리나라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약 2,948만 명) 3명 중 1명이 고용24 회원으로 가입한 수치이다. 아울러 매일 104만 명이 고용24를 방문하여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고용24’는 여러 정보망을 오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워크넷(취업알선), 고용보험(실업급여·장려금), 직업훈련포털(직업훈련) 등 9개의 플랫폼을 합쳐 한 곳에서 서비스를 신청·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이다. ‘고용24’ 도입으로 여러 시스템에 흩어져 있던 정보들의 통합·연계가 가능해지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자동심사, 로봇자동화(RPA) 도입을 통해 업무처리도 크게 효율화했다. 실제로 ‘고용24’ 개통 이전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우 실업급여, 내일배움카드발급, 국민취업지원 등 서비스의 신청에서 처리까지 걸리던 시간이 7일(22년)에서 3.6일(24년)로 약 48% 단축되었다. 기업의 경우에도 장려금추천, 첨부서류 자동 연계, 사전심사 등 편의성이 높아져 온라인 신청 건수는 약 1.5배 증가하고 민원처리 소요시간도 16.1일(22년)에서 11.3일(24년)로 약 30% 단축되는 효과를 보였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일자리매칭을 통한 취업자는 25%, 인공지능(AI) 기반 개인 맞춤형 진로·경력설계 서비스(잡케어) 이용 건수는 5배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고용24’ 개인회원은 10~20대(25.9%), 30대(23.7%), 40대(19.8%), 50대(18.0%), 60세이상(12.6%) 순으로 많으며, 취업알선(33.7%), 구직급여(16.5%), 직업심리검사(9.9%), 국민내일배움카드(9.9%) 순으로 서비스 이용 비중이 높았다. 기업회원은 제조업(28.9%), 보건복지(18.9%), 도소매(12.6%) 산업 순으로 가입자가 많고 특히, 취업알선(49.1%)과 외국인 채용(27.9%)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확대 적용해 ①구직자에게 가장 적합한 일자리와 직업훈련 추천을 강화하고, ②중소기업이 적합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할 수 있도록 채용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③디지털 이력서 도입, 인공지능(AI) 상담챗봇 등 더 많은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 카카오 >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25년 1월 22일, 한국산업인력공단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격정보-카카오 디지털 카드’ 연계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지원 강화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1월 22일 공단 본부(울산 중구)에서 카카오(대표이사 정신아)와 ‘수험자 맞춤형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국가 자격정보-카카오 디지털 카드 연계」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카카오가 보유한 플랫폼과 콘텐츠를 활용해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확장할 예정이다. 공단은 493종목의 국가기술자격시험과 37종목의 전문자격시험을 주관한다. 연간 450만명(국가기술자격 400만명, 국가전문자격 50만명)이 응시하는 국가자격

전문기관으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국민 서비스를 적극 개선한 점(모바일자격증, 디지털배지, 큐넷 모바일 전자지갑 도입 등)을 인정받아 국가생산성대회(산업통상자원부 주최)에서 「4차 산업 선도기업 부문 대통령상(대상)」을 수상했고, 「이달(11월)의 공공서비스(행정안전부 주관)」에 선정됐다. 이우영 이사장은 “카카오와의 긴밀한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국가자격시험 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라며, “국가자격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 국민 역량의 총합을 증가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기술교육대 ‘가상훈련(VT)의 날’ 성황



2025년 1월 16일, 한국기술교육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한국기술교육대 ‘가상훈련(VT)의 날’ 성황**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6일(목) 공공·민간 종사자 대상 ‘에듀테크 직업훈련 활용 등 우수사례’

한국기술교육대학교(KOREATECH·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은 1월 16일(목)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카네이션 홀에서 공공·민간 직업훈련기관, 기업 교육훈련 담당자, 가상훈련 학습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훈련(VT. Virtual Training)의 날’ 행사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지섭 융합학과 교수가 ‘가상훈련 및 메타버스 활용의 미래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우수 직업훈련기관 종사자가 ‘가상훈련 콘텐츠를 활용한 과정평가형 자격 운영 사례’를 발표했다. 육군군수학교에서 ‘스텝 가상훈련 콘텐츠’를 국가기술 기반의 자격과 연계해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운영에 필요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고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과정평가형 자격으로 인정받았다.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 박남용 교수는 ‘메타버스 기반 시범운영 효과 사례’를 발표했는데, 2년간 메타버스 시범운영기관으로 축적해 온 집체교육의 경험과 건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프라인 수업’에 ‘메타버스’를

접목한 혼합형 직업훈련 과정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상훈련 콘텐츠를 쉽게 활용하기 위한 어플리케이션인 ‘STEP-VT 런처’를 적극적 활용한 우수학습자와 개발 담당자도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의 피드백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STEP-VT 런처란? STEP 가상훈련 콘텐츠 전용 PC 애플리케이션으로 콘텐츠별로 개별 로그인하지 않고, 수강신청과 학습관리, 콘텐츠 관리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직업훈련기관과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로 가상훈련, 메타버스 등 에듀테크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라면서 “고객들의 요구사항과 아이디어를 스텝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온라인평생교육원은 1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이하 스텝) 홍보 부스를 운영, 가상훈련 콘텐츠를 비롯해 다양한 에듀테크 활용 콘텐츠를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



2025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외국인근로자가 필요한 시기에 맞춰 고용허가를 신청하세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25년도 5차례 외국인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일할 근로자가 필요한 기업이 제때에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25년도에 5차례 신규 고용허가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일정: (1차) 2.10.~2.21. (2차) 4.21.~5.2. (3차) 7.7.~7.18. (4차) 9.15.~9.26. (5차) 11.24.~11.28.

이에 따라 기업에서는 경영상황에 따라 인력 필요시기에 맞춰 고용
허가를 신청하여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정부는 '24년 입국 인원과 인력수급전망에 따른 인력부족분, 경기 전망 등 대외여건, 사업주 및 관계부처 수요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25년 외국인근로자(E-9)의 도입규모를 13만명으로 결정한 바 있다.

1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22,418명(제조업 16,328명, 조선업 625명, 농·축산업 2,347명, 어업 2,077명, 건설업 445명, 서비스업 596명)으로, 2월 10일부터 2월 21일까지 신청·접수 예정이다.

신청 결과는 3월 11일에 발표되며,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조선·광업의 경우 3.12~3.18, 농축산·어업, 임업, 건설업 및 서비스업은 3.19.~3.25에 진행될 예정이다.

박일훈 국제협력관은 “기업이 제때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용허가 신청 사업주의 평가 항목을 간소화 하는 등 필요한 제도개선을 연중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NCS 동향



2025년 NCS 펌닥터(Firm doctor) 인력풀 모집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교육·훈련기관 및 기업 등에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공단은 NCS 활용현황을 모니터링(진단)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처방)하여 NCS 개선을 지원하는 “NCS 펌닥터(Firm doctor)”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NCS 활용분야(직업교육, 직업훈련, 자격, 기업활용 등)의 현황 및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 필요사항은 NCS에 반영하여 NCS 개발·개선 및 활용 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NCS 펌닥터(Firm doctor)는 NCS 세분류별 산업현장 전문가 1~2인으로 구성되며, 약 3~4개월간의 기간동안 NCS 활용기관을 모니터링하고, NCS 개선 필요사항과 활용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 제출을 통해 과업은 마무리된다.

평닥터(Firm doctor)에 관한 자세한 사업내용과 모집공고문은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집기간: 2.17(월) ~ 2.28(금)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직무능력품질부 052-714-8714

NCS 스페셜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저축·활용할 수 있는 ‘직무능력은행’을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와 일하고 싶은 사업장이라면?

2025년 총 5번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차 2.10.(월)~21.(금)

2회차 4.21.(월)~5.2.(금)

3회차 7.7.(월)~18.(금)

4회차 9.15.(월)~26.(금)

5회차 11.24.(월)~28.(금)

✓ 고용허가제 신청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 '25년 1회차 신청일정은?

'25.2.10.(월)
~2.21.(금)
고용허가 신청


3.11.(화)
사업장
확정 발표

제조·조선·광업 3.12.(수)~18.(화)
그외 3.19.(수)~3.25.(화)
고용허가 발급

'25.5월~
외국인근로자
입국

고용허가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www.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 제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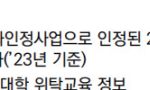


직무능력은행

아직도 따로 발급받고 계시나요?

이제는 **직무능력인정서**
하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창에 “직무능력은행”을
입력해보세요
<https://bank.ncs.go.kr>



직무능력은행 이용 방법

직무능력은행이란? 개인이 생애에 걸쳐 습득한 다양한 직무능력을 저축·통합 관리하여 취업·인사배치 등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정보관리 시스템'입니다.

- ▶ 직무능력 시스템을 통해 나의 자격·교육·훈련·경력 정보가 자동으로 계좌에 저축됩니다.
- ▶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계좌 내 직무능력정보는 원하는 정보만 선택하여 '직무능력 인정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

- 544종 국가기술자격(검정형, 과정형) 정보
 - ※ 8개 수탁기관과 국가기술자격 포함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대기산업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관광해설공단,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전력산업기술원, 영화진흥위원회
- 일학습병행 자격 정보
- 국방부 자격 12종

훈련

- HRD-Net 직업훈련 과정 이수 정보
 - 사업주: 사업주훈련(자체/위탁), 컨소시엄훈련, 지역산업일학습병행훈련
 - 개인: 내일배움카드훈련(국가기간직관산업 적용훈련, 일반직종, KDT 등)
- 일학습병행: 일학습병행훈련, IPP 등

교육

- 대학교 교과인정사업으로 인정된 24개 대학 264개 교과('23년 기준)
- 한국폴리텍대학 위탁교육 정보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계좌제 학습 이력
- 고등학생 NCS기반 전문교과 이수 정보(NEIS 연계)

경력

-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 정보 (일용, 상용)
- 국세청(홈택스) 개인사업자등록 정보
- 국방부 군 경력정보(군간부)

회원 가입하기

1. pc 또는 모바일을 통해 직무능력은행 홈페이지(<https://bank.ncs.go.kr>)로 접속

2. 회원 가입 → 개인회원 → 개인 인사사항 가입, 개인정보 수립 활동 동의 체크

※ 국가직무능력정보(NCQI) 홈페이지와 회원은 동일한 계정으로 이용 가능

직무능력계좌 발급

로그인 후 **직무능력계좌 발급하기** 클릭

- 자격취득, 훈련이수 종료 등 나의 직무능력정보가 직무능력계좌에 자동으로 저축됩니다.

직무능력계좌 조회

직무능력은행계좌 조회

직무능력계좌 조회 클릭하면


- 현재 저축된 나의 직무능력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계좌 업데이트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

인정서로 발급을 원하는 정보만 선택한 후 **직무능력 인정서 발급하기** 클릭

- 발급받은 인정서는 자격증, 상용 등 증명 대신하여 출력 또는 저장 후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인정서 출력 및 저장의 무료



2024년 12월 고용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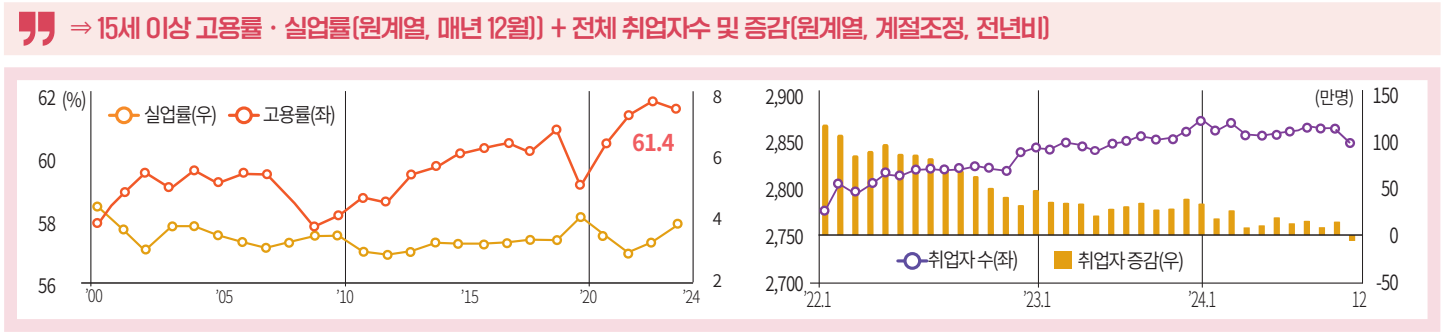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2025. 1. 15.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2024년 12월 고용동향**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고용률(61.4%) 12월 역대 2위, 경제활동참가율(63.9%) 12월 역대 1위, 실업률(3.8%), 취업자수 △5.2만명 감소

○ 15세 이상 고용률 61.4%로 △0.3%p 하락, 15~64세 고용률 69.4%로 +0.2%p 상승
- 경제활동참가율(63.9%, +0.1%p) 12월 기준 역대 최고

○ 실업률(3.8%, +0.5%p)

○ 취업자수 전년대비 △5.2만명 감소,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감소 전환



- ☑ (산업) 서비스업 증가, 제조업·건설업·농림어업 감소

○ **서비스** 46개월 연속 증가 지속, 증가폭 축소(+35.0 → +17.7만명)
 - 전문과학(+10.7만명)·교육업(+6.6만명)·정보통신(+5.2만명) 증가 지속
 - 도소매(△9.6만명) · 사업시설업(△5.8만명) 감소 지속
 - 보건복지(△0.3만명) · 공공행정업(△0.1만명) 감소 전환

○ **제조**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감소(△9.7만명)

○ **건설** 기저효과 ·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폭 확대(△15.7만명)

○ **농림** 조사주간 강수량 감소 등 영향으로 증가 전환(+2.5만명)
- ☑ (지위·연령) 상용직 58.6% 12월 역대 최고, 대부분 연령대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18.7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고용無 자영업자 증가 지속 + 고용有 자영업자 감소폭 축소

○ **연령** 30대·40대 고용률 상승, 고령층 고용률 감소 전환
 - 청년층 고용률(44.7%, △1.3%p) 하락, 핵심 취업연령대인 20대 후반 고용률(71.5%, △0.9%p) 하락하였으나 역대 2위로 높은 수준
 - 청년층 쉬었음(41.1만명, +4.5만명) 20대 후반(21.2만명, +3.3만명) 중심 증가

- ⇒ ⇒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
- ① 상반기 중 일자리 등 민생·경기사업 70% 이상 신속 집행, 18조원 수준 경기보강 등 통해 내수 회복과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뒷받침
 - 직접일자리 사업 채용인원을 확대('24년117.8→'25년123.9만명)하고, 조기·통합공고 등 통해 신속채용(1분기 90% · 상반기 97%) 추진

② 일자리 점검반 중심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 일자리지원방안 점검·보완
 - (청년) 미취업·쉬었음 청년 대상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채용행사* 집중 개최 등 통해 청년층 취업분위기 조성·확산
 - * 2025 대한민국 채용박람회(3월), 고용센터의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매월) 등
 - (중장년) ①폐업 자영업자 대상 특화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②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취업지원센터 확대 등 맞춤형 지원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2032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 한국고용정보원, 2024년 12월 ☞ 정순기, 홍현균, 박미화, 박승훈, 공예림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2022-2032 : 미래 일자리 세계의 변화**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산업별/직업별 인력수요 전망

• 기대되는 산업의 성장

• 인구 변화와 우리 노동시장 관계

☑ **주요목차**

• 지금부터 10년, 새로 쓰는 역사

• 밀려오는 변화의 물결

• 세계 경제의 오늘과 내일

• 노동 현장의 변화

• 우리 경제를 이끄는 노동력

• 미래 일자리 전망

• 경제적 효율성을 위한 랩소디

•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 기술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성장경로 모델 개발 연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4년 10월 ☞ 류지은, 정윤경, 김성남, 김대영, 손규태, 최지연, 최지희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성장경로 모델 개발 연구**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고졸 인력 양성이 요구되는 대표적인 신산업분야 선정

• 신산업분야에서 고졸 인력 성장경로 모델 예시 개발

• 신산업분야의 고졸 인력 양성과 경력개발 지원에 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 **주요목차**

• 고졸 인력 성장경로 관련 이론 및 정책

•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수요 및 양성 동향

•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성장경로 탐색

• 신산업분야 고졸 인력 성장경로 모델과 지원 과제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 연구



🔍 한국고용정보원, 2023년 12월 🔍 안준기, 오진욱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고령자 계속고용 운영 현황 조사 연구**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정년실태조사 바탕 재고용 실태 및 정년 연장 현황 조사분석
- 정년제와 재고용제도의 연계 실태 및 재고용 형태, 임금수준, 직무 및 근로시간 변화, 도입절차 및 효과
- 정년제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사업장 대상 심층 인터뷰
- 재고용 및 정년 연장 시사점, 모델 제시

☑️ 주요목차

- | | |
|--------------------|------------------------|
| •고령자 계속고용 선행연구 | •한국의 정년 및 재고용제도 운영 현황 |
| •고령자 계속고용 해의 사례 검토 | •정년제 및 재고용제도 관련 심층 인터뷰 |

SQF 활용·확산을 위한 현장경력의 직무능력 인정방안 연구(정보기술분야)



🔍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2024년 11월 🔍 김태현, 강석진, 임정연, 조정윤, 김상돈, 정우찬, 장혜미

🔍 QR코드를 스캔 OR 클릭하면 **SQF 활용·확산을 위한 현장경력의 직무능력 인정방안 연구(정보기술분야)** 보도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요내용

- 현장경력 인정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사 인정제도, 사례와 선행연구 비교·분석
- 현장경력 인정 주요절차 및 방법에 대한 세부방안 마련
- 직무별 현장경력에 대한 직무능력 인정 평가도구 개발
- 현장경력 인정 평가 도구의 객관성, 타당성 검증

☑️ 주요목차

- | | |
|-------------------------|-------------------------|
| •국내외 유관 역량인증제 사례 연구 | •현장경력 직무능력 역량인정 평가도구 개발 |
| •현장경력 직무능력 역량인정 세부방안 도출 | •현장경력 직무능력 역량인정 시범적용 |



1.1.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개정·고시

1.23. 2025년 과정평가형 국가기술자격 교육·훈련 과정 지정

2.4. 2025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계획 공고

2.5. 디지털(AI·SW) 교육 강화를 위한 고용부·과기정통부 업무협약 체결



2.5.~2.7. 2024학년도 학위수여(수료)식

2.5. 제27주년 학교법인 창립기념식

2.19. 폴리텍·바이오마이스터고 업무협약식

캠퍼스별 ~3월. 2025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정시 원서접수

캠퍼스별 ~3월. 전문기술과정, 하이테크과정 신입생 원서접수

연중 계속. 신중년특화과정, 여성재취업과정 신입생 모집



1.16. 직무능력은행-사업주자격 연계 현장간담회 개최

1.22. 한국산업인력공단-카카오 업무협약(MOU) 체결

2.3. 현장맞춤형 체계적훈련 지원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2.17.~25. 국가직무능력표준(NCS) 펌닥터 운영기관 모집 공고



1.22.~2.21 고용24 누적회원 가입자 천만 달성 이벤트 실시

1.24.~2.10. 2025년 1차 직원 채용 공고



1.16. 가상훈련(VT)의 날

1.16.~2.14. 4기 산업안전정책 최고경영자과정 모집

1.20.~2.26. 직업상담사 1급 자격취득과정 교육생 모집

2.5. 2025년 국제 TVET(직업기술교육훈련) 호럼 및 세미나

2.5. AI 활용 고용서비스 업무 효율화 경연대회

☑️ 직업능력심사평가원

2.3.~2.10. 2025년도 제3차 훈련이수자평가 신청·접수

도약 2.4~2.18. 혁신! 상시 2025년도 직업훈련 혁신 컨설팅 신청·접수

2.7. 2024년도 K-디지털 트레이닝 성과평가 결과 공고

2.17.부터, 상시 2025년도 훈련과정 평가체계 맞춤형 코칭 신청·접수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1.2. 한국의 성인역량과 노동시장 성과: 1주기와 2주기 결과 비교(「KRIVET Issue Brief」 296호) 발표

1.16.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직업능력 정책(「KRIVET Issue Brief」 297호) 발표

※ 향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RDK 백배 활용법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궁금해요!

HRDK가 알려드릴게요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고용허가제란?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 (총 17개국)

필리핀	몽골	스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네팔	미얀마	동티모르
라오스	타지키스탄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
임업	광업	서비스업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외국인근로자 채용 절차

내국인 구인 노력 → 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 근로계약 체결 → 사증발급신청서 신청 및 발급 → 비자 신청 및 발급 →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한국이 아직 낯설어요. 회사 적응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A. 입국초기 취업적응 지원 이용해 보세요!

대 상 입국 3개월 이내 외국인 근로자 및 사업주

지원 내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근무 환경,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적응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지도

지원 방법 사업장 방문 및 전화 (농, 축산, 어업, 5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에 대해 방문 실시 원칙)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Q. 외국인 근로자와 언어가 안 통해 일을 가르치기 어려워요!

A. 사업장 내 애로해소 지원 이용해 보세요!

대 상 사업장 내 애로갈등을 겪는 사업주 및 외국인 근로자

지원 내용 사업장 내 애로·갈등 해소 (직장 동료(상사)와 갈등, 사업장 변경 관련 애로, 생활 고충, 통역 지원, 행정 신고 업무지원 등 (전화·방문))

지원 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지부지사 방문 및 전화 신청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희망찬 2025년을 응원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글로벌인적자원개발 파트너로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새해 아침 떠오르는 뜨거운 태양처럼
여러분의 미래가 밝게 빛나기를 기원합니다.

HRDK 한국산업인력공단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